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꼽는 우리고장 최고 문화유산

228개 지자체 합동 '우리고장...' 발간

우리 고장의 자랑할만한 문화유산은 무엇일까?
시장·군수·구청장 등 전국 2백 28개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자기 고장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하나씩 꼽아 화제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인사 팔만대장경처럼 국보와 보물에서 이렇듯 산골의 소박한 3층석탑까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최근 펴낸 <우리고장 문화유산 1·2>(개마서원 펴냄)은 각 지역 문화보존담당자들이 실무로 담당, 문화재전문가 아닌 그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각 지역에서 최고로 꼽는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도

가 박물관'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문화유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 4쪽안에 그 지역의 자랑거리를 풀어놓았다.
경북 경주시와 충남 부여군은 누구나 아는 불국사와 정림사지 5층 석탑을 자랑거리로 내놓았고 경기 안양시는 타지역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동자승이 종을 치고 있는 석수동마애종'을 자랑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름없는 문화유산들을 찾아낸 곳도 있다. 대구 동구와 경북 김천시는 각각 '동화사 원통각 목어의 부름듣는 눈'과 '직지사의 별거뵈는 동자승 및 제각각인 나한상들'을 소개해 이채를 띠었고, 경남 함안군은 머리가

사라진 채 내버려져 있는 불상들을 세우면서 끝냈다.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중흥사 석등은 광주 북구와 전남 광양시가 서로 내로라하는 문화유산. 광양시는 빼어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석등이 제자리를 찾아 홀로 절터를 지키고 있는 3층석탑과 짝을 이루기를 기원하며, 북구는 반출된지 72년만에 겨우 호남땅에 돌아왔다는 기쁨에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삼았다. 불교초전지도 지역 의 큰 자랑거리. 경북 구미시와 전남 영광군은 각각 신라와 백제불교의 초전지도 알려졌던 도리사와 불갑사를 내세웠다.
단체장들이 이러한 문화유산을



◇김천시가 자랑하는 직지사 나한상들. 생생한 표정과 개성있는 몸짓이 눈길을 끈다.

최고로 꼽는 이유도 재미있다. 칠갑산 장곡사 석불은 방석깔고 명상하는 모습이 충청도 사람의 느긋함을 말해주는 것같아, 군산시 발산리석등은 구름속에 요동치는 힘찬 용조각이 수출한 군산의 웅진하는 모습을 대변하는 듯해 선택됐다고 한다. 전남 영암군은 보물들 가슴에 품고있는 '월출산의 장대한 계곡과 능선사이로 어슬푸레 퍼오르는 처연한 달의 아름다움'을 첫손에 꼽았다.

이밖에 '주인을 지키려다 죽은 오수의 개'나 '너와집에서 고통받으며 하룻밤을 보내는 즐거움'을 큰 자랑으로 여기는 단재장도 있어 우리 산하 어느 곳을 가더라도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된다.
한편 책 말미에는 지역축제, 민속장날, 천연기념물, 특산물 등에 대한 '문화정보'란을 별도로 정리, 수록했다.

윤기석 기자

불심시심 <131>

녹음이 해를 가리었느냐

枕上聽鶯語 배개 위에서 피꼬리 소리 듣고
(침상청앵어)
問者童子曰 동자에게 묻기를
(문자동자왈)
家前五柳樹 집 앞 다섯 버드나무에
(가전오류수)
綠陰能遮日 녹음이 해를 가리었느냐
(녹음능장일)

월하(月荷 1773~1849)대사의 시이다. 월하대사는 이름이 계오(戒悟)요 자는 봉거(鳳舉)이고 월하는 호이다. 속성은 안동 권씨이다. 아버지는 모현(慕賢)이고 어머니는 밀양 박씨인데 어머니의 태몽에 달이 품으로 들었고, 태어날 때는 산이 세 번이나 울고 부엉이가 옥상에 내려와 울었다 하니, 호와 자는 이러한 길상의 징조를 연상하여 지은 듯하다.
7살에 서숙에 나아가 하루에 1천여자를 배워도 어려워함이 없고 시구를 외우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11살에 부모의 뜻에 따라, 팔공산의 월암(月庵)수좌에게서 체발하고 지봉(智峰)화상에게 법을 전해 받았다.

여가가 있을 때에는 불경 이외에도 백가서를 수집하여 탐독하니, 그의 문장력은 민첩하면서 호방하여 조금도 속된 기상이 없었다. 시는 더욱이 고고하여 조금도 꾸민 흔적이 없어 스스로 작가의 기품을 형성하였다.
대사의 문집은 <가산고·伽山稿>라 하여 4권이 전하고 있는데, 서문에 이러한 경이 있다. "문은 옛사람의 작자의 법도가 있고, 시 또한 전하여 속스러운 기상이 없다" 하였으니, 여기에서 대사의 시문이 고고 탁속함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 시는 '병중(病中)'이라
이준찬 <동국대 교수>

"범패 들을수록 감동"

서울국악대경연 대상 안현정씨

"심산유곡에서 들려오는 듯한 범종소리와 같이 그윽하면서도 유장한 범패의 선율과 깊고 단정하면서도 길게 이어지는 범소리에 매료됐습니다."



5월 26일 열린 제9회 서울국악대경연에서 범패선율을 소재로 한 작품 '화연(和蓮)'으로 창작부문 대상을 차지한 안현정씨(25·서울대대학원 재학)는 범패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맛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화연(和蓮)'은 테너독창과 혼성합창, 그리고 관현악이 적절히 조화된 총 4악장, 연주시간 12분의 국악, 심사위원들은 범패를 소재로 한 착상이나 국악관현악을 서양적인 합창에 접목시킨 편성 등이 단순한 편곡수준에 그쳤던 국악관현악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범패는 판소리·가곡과 함께 3대 전통악의 하나로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음악이지만 최근 국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술의전당 영상자료실에서 비디오와 테이프를 구해 범패의 구조와 음을 익혔다는 안씨는 경기도국악동아리에서 선생님의 가야금 소리에 매료돼 국악을 택했으며, 어릴 때 익힌 피아노와 합창단에서 갖고닥은 실력이 작곡을 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한다.
일시적인 감흥보다는 감동의 여인이 길게 남는 작품을 쓰고 싶다는 안현정씨는 "앞으로 전통음악을 소재로 서양악기를 위한 작품을 써 세계속의 한국작곡가로 평가받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석>

곽훈 설치·드로잉전 '詩茶禪'

14일까지 금호미술관

9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개관 첫해 초대작가로 참가했던 곽훈씨(57)가 14일까지 시간들 금호미술관에서 '詩茶禪'을 주제로 한 대형 설치·드로잉전을 갖고 있다.

곽훈씨가 경기도 이천에서 직접 구운 다완(차를 담는 대접) 1백여개를 약 150cm 높이의 철제 좌대위에 올려놓은 설치작품을 중앙에 세우고 다완을 추상적으로 그린 드로잉 60여점을 세 벽면에 빼곡히 붙였다. 쇠와 흙, 종이와 어우러진 전시장은 '다선일여(茶禪一如)'의 선적인 이미지가 가득하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9월 뉴욕 찰스 카울스 갤러리에 내놓을 '詩茶禪' 연작의 일부를 미리 선보이는 자리이다. '시다 선' 전시회에서는 입체와 평면, 오브제가 어우러져 동양적 명상의 세계와



◇시다 선'을 주제로 한 곽훈씨의 설치미술전에는 '다선일여'의 선적인 분위기가 가득하다.

선적인 분위기를 전달할 계획이다.
곽훈씨는 "연간 우연히 추사의 서첩에서 '詩茶禪' 글씨를 보고 '바로 이거다' 하는 큰 충격을 받았었다. 동양의 정신문화를 압축한 말이 이것이 아닐까요. 이후 이 세가지는 내 미술작업의 일관된 주제가 돼 왔습니다"라고 말한다. (02)720-5114

천태종 찬불가제전

25일 관문사서

경제난극 극복을 기원하는 대규모 찬불가제전이 열린다.

천태종은 2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서초구 우면동 관문사 육불전에서 금강불교합창단을 비롯한 천태종 산하 전국 31개 불교합창단이 동참하는 찬불가제전을 개최한다. 연 1천 4백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게 될 이번 찬불가제전은 1부 국난극복가행법회, 2부 합창발표회로 진행되며 '종소리', '고행의 길', '엄주', '사바의 꽃' 등의 찬불가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 종단 부전스님들이 특별 출연해 범패와 바라춤을 선보이며 마하연 실내국악관현악단과 성룡사 어린이회도 우정 출연한다.

에밀레종에 고임목

경주博, 종각개축 검토

에밀레종의 완벽한 보존을 위해 종바닥에 나무받침대가 괴어진다.
국립경주박물관은 2일 종을 약간 들어올려 유뉴(종을 종각에 거는 고리)에 걸리는 부하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물관의 이같은 조치는 종에 이상이 드러났기 때문은 아니며 18.90t인 엄청난 무게를 1천2백년간 지탱해온 유뉴를 쉬게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직 나무고임대의 규격이나 모양, 끈의 위치와 높이 등은 결정된 바가 없으나 만일의 경우 타종에 대비, 나무판을 쉽게 들

문화재 단신

어울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물관측은 또 콘크리트로 지은 에밀레종 보호각을 전통목조건축으로 바꿀 계획이다. 타종여부는 종합학술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옥룡사지 사적 예고

광양시 복원추진

도선국사가 입적한 곳으로 알려진 전남 광양시 옥룡사지 일원 5만5천여평이 사적으로 지정돼 됐다.
문화관광부는 5월30일 "옥룡사는 8세기 초 통일신라 때 창건된 유서깊은 사

찰로 최근 순천대박물관의 발굴조사 결과 90여점의 유물과 함께 도선국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과 석관이 발견되는 등 중요한 유적으로 인정된다"며 "전남도 기념물 166호와 12호로 각각 지정돼 있는 옥룡사지와 백계산동백림을 하나로 묶어 사적으로 승격 지정에 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옥룡사지가 사적으로 지정돼 복원사업이 국가지원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80여억원을 들여 옥룡사지 인근 사유지를 매입, 도선국사 수련관과 생비생당전 건립 등 사찰 복원과 관광자원화에 나서기로 했다.
문화재 지정은 관보 예고 30일 이후 문화재위원회 지정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선시대 문화유산 전통디자인 체계정립

영문 CD롬

건축물, 생활용품, 한복, 한글 등 조선시대 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분석, 한국 전통디자인 체계 정립한 CD롬이 제작됐다.
삼성디자인연구원(원장 박재관)이 제작한 CD롬 타이틀은 '디자인으로 본 한국사상(Korea Spirit in Design)'. 조선시대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모자와 머리핀, 온장도, 건축물 등 총 17개 분야 1백점의 유물을 선정, 각각의 유물이 지니고 있는 형상·선·색상·

형식의 등을 전통음악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CD롬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제작한 것으로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해외 유명박물관과 예술단체 등에 제공, 한국 전통디자인 자료로 활용된다.
삼성디자인연구원은 지난해 '석굴암' CD롬을 제작, PC디자인전 IDEA디자인전 등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건·강·보·조·식·품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위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지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적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상을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과 귀)·셋째 강녕(康寧:편안함)·넷째 유오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지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호소정액(松醇素精液)·솔선식(松仙食)」 등 「지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정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 스님이 40여년간은 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갈은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체중이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피지며 다량의 등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 격
불로화정
정가 50만원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 (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솔호소정액(松醇素精液)·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산에 사는 사람의 신선(山仙人)의 주식(主食)은 시계절에 푸른 소나무나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겠다.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애고서 불을 생(生)하기 (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의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三木)의 나란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시찰 및 민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아는 여래치신(치신)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사 소나무임장주(梁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종합(梁精)종합식품이 「솔호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호소정액」은 솔잎·솔순·솔배합·솔미다·솔향기유·솔진·솔근백비·솔복피·솔이버섯·백봉령·적봉령·백봉진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홍삼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 없이 「솔호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 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g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 되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의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이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활력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기원,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호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평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호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 [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 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의회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호소정액(松醇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원환약 1개 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如來治身自然食品

● 구입문의: 053)628-9145/053)655-2227/011)808-8880
●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대구여러원